

안녕하세요? 자연환경해설사 신혜선입니다. 올해가 무슨 해 일까요? 계사년! 바로 뱀의 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위에서 뱀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쯤 깨어나거나 아직도 자고 있을 것입니다. 뱀을 포함한 파충류는 겨울잠을 자는 것이 특징입니다. 뱀은 변온동물로 겨울의 낮은 온도로는 몸속의 물질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뱀은 체온유지에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먹이를 자주 먹지 않아도 겨울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뱀은 한번 물을 마시면 오랫동안 참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늘덕분인데요, 뱀의 비늘은 젤라틴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늘은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성장함에 따라 허물을 벗어야만 합니다. 허물을 벗을 때는 바위나 나뭇가지 틈에 몸을 비비며 코부터 몇 초안에 벗는데, 건강한 뱀의 허물은 몇 개 일까요? 한 개입니다. 허물을 잘못 벗으면 비늘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호흡이나 물질대사 등 생리작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죽게 됩니다. 허물을 벗는 횟수는 뱀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 뱀은 성장이 빨라 1년에 15번 정도 벗습니다.

허물을 벗은 뱀은 힘들고 몸을 말려야 하기 때문에 잠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오전에 뱀을 만나도 종종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은 변온동물이라 움직이려면 햇볕을 쬐서 체온을 상승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뱀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잡거나 죽이려고 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뱀을 만나면 가장 많이 물리는 부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다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손과 팔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뱀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건드리는 사람들 때문이겠지요.

베트남의 어느 농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뱀이 보기 싫다고 뱀을 모두 잡았더니, 이듬해 농작물의 소출이 3분의 1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것일까요? 바로 설치류, 즉 쥐 때문입니다. 보통 뱀 한 마리는 1년에 알을 20~80개 낳고, 쥐를 100마리 잡아 먹는데, 뱀을 모두 잡아 버리니 쥐의 개체가 늘어 농작물에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으로 인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생김새만 보고 징그럽다거나 무섭다는 선입견을 갖기 전에 뱀의 생태적 지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뱀은 귀신도 쫓아주고 집을 지켜주는 동물로 인식하여 해치지 않았습니다. 부의 상징이자 수호신인 뱀은 특히 오늘 우리가 체험해보았던 허물벗기를 통해 재생, 즉 재탄생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올해 계사년 뱀의 해를 맞아 생태계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뱀에 대해 알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뱀을 생각해 주기,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부터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